



→ 인사말

경제학부 소식/지

· 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동문기고1

· 동문기고2



동문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김 인 준(경제학부 교수)

동문 소식지를 통해서 여러 동문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학부장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는 연구 중심의 대학원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핵심은 학부(undergraduate)이며 앞으로 학부 교육은 우리나라의 리더를 기르는데 충실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학부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설정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학문을 계속하는 학생들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산업과 금융부문 등 현업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나 사법 시험 등을 치고 공직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는 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부 학생들이 앞날을 결정할 때 자기들의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딴 일도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남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미국 농구를 상징하는 마이클 조던 선수도 야구에서는 마이너(minor)리그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계로 나아가야 할 학생이 고시 준비에 허송 세월을 한다든지 학문에 뜻이 없는 학생들이 단지 학점이 좋다는 이유로 공부를 계속하려 한다면 본인과 국가에 모두 도움이 안됩니다.

앞으로 학부과정 커리큘럼(curriculum)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비교우위를 찾아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학원 교육은 경제학 학문 후속세대와 경제 전문가를 기르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 문호를 넓혀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수요를 충족 시킬 질 높은 다양한 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경제학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경제학부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경제학부의 교수진은 외국 유수 대학에 비해 못하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질 높은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석좌교수, 기금교수 제도 등을 활용한 보다 많은 우수 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문 후속세대가 학문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나라를 이끌 학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설 설비 등 앞날을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한 소프트웨어(software)나 하드웨어(hardware) 상의 모든 문제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경제학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학부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우수 학생들이 계속 경제학부에 들어오고 있고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우수한 교수들이 계시며 그리고 경제학부의 미래를 향상시켜보시고 함께 숙제를 풀어 나가는 동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 UP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5 호 발간일 : 2003 년 11 월 12 일

→ 경제학부소식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1

동문기고2

1. 교수동정

1. 인사

강광하	경제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촉	2001.01.01 - 2002.12.31
김수행	경제연구소장	2000.12.04 - 2002.12.03
	생활복지조합 이사	2001.01.03 - 2003.01.02
김신행	재단법인 제원연구재단 감사	2000.12.05 - 2001.12.04
	경제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001.01.01 - 2002.12.31
김인준	경제학부장 겸무	2001.04.24 - 2003.04.23
	사회과학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장	2000.12.04 - 2002.12.03
	국제지역원 운영위원 위촉	2001.05.01 - 2003.04.30
박우희	정년퇴임	2001.02.28
송병락	미국학연구소 운영위원 위촉	2001.05.04 - 2003.05.03
이지순	경제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001.01.01 - 2002.12.31
전영섭	경제연구소 연구부장	2000.12.13 - 2002.12.12
정영일	서울대학교 평의원 임명	2001.04.19 - 2003.04.18
정운찬	수암문화장학재단 이사	2001.02.03 - 2005.02.02
	경제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001.01.01 - 2002.12.31
홍기현	대학원 이론경제학 전공주임 겸무	2001.04.24 - 2003.04.23
이근	사회과학연구원 정보자료실장	2001.03.01 - 2003.04.23
이상승	신규임용(부교수)	2001.03.01
이인호	신규임용(부교수)	2001.03.01
김대일	경제연구소 발간부장	2000.12.13 - 2002.12.12
이철희	경제연구소 자료부장	2000.12.13 - 2002.12.12

2. 외국방문

강광하	일본	자료수집	2001.01.29 - 2001.01.11
김수행	영국	자료수집	2001.03.25 - 2001.03.29
김세원	미국	학술회의 참석	2001.01.05 - 2001.01.11
	미국	자료수집	2001.03.13 - 2001.03.21
김완진	미국	학술회의 참석	2001.01.05 - 2001.01.11
	칠레외	자료수집	2001.03.30 - 2001.04.08
김인준	미국	자료수집	2001.02.02 - 2001.02.06
안병직	일본	강의	2001.02.12 - 2001.02.19
이승훈	미국	자료수집	2001.02.06 - 2001.02.13
	칠레외	자료수집	2001.03.30 - 2001.04.08
이준구	미국	자료수집	2001.02.08 - 2001.02.15
이천표	이집트	워크숍참석	2001.03.17 - 2001.03.22
전영섭	미국	자료수집	2001.01.30 - 2001.02.10
정영일	일본	워크숍참석	2001.03.18 - 2001.03.21

정운찬	영국	자료수집	2001.01.31 - 2001.02.04
	영국	학술회의 참석	2001.05.09 - 2001.05.12
표학길	미국, 일본	세미나 참석	2001.01.14 - 2001.01.31
	일본	세미나 참석	2001.03.21 - 2001.03.24
이근	미국	학술회의 발표	2001.01.10 - 2001.01.15
	일본	세미나 참석	2001.03.30 - 2001.03.31
	미국	학술회의 발표	2001.05.03 - 2001.05.06
김대일	미국	학술회의 참석	2001.05.09 - 2001.05.14
이철희	미국	자료수집	2001.01.31 - 2001.02.10

2. 학부행사

1. 교무

1) 2000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논문심사

■학위수여

석사 : 학위수여 19명

박사 : 학위수여 5명(신현준, 요코타 노부코,

이승무, 이재우, 조성재

2) 2001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생 선발

■복수전공 신청기간 : 2001. 2. 12 ~ 2. 17

■부 전 공 신청기간 : 2001. 3. 2 ~ 3. 28

3) 2001학년도 김태성 논문장학금 지원현황

■신청기간 : 2001. 3. 5 ~ 3. 17

■지원현황 : 석사 2명, 박사 3명 지원

2. 행사

1) 2001학년도 사회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00. 2. 19 - 2. 21

■장소 : 속초 삼포 코레스코론도

2) 2001학년도 경제학부 신입생 학사지도

■일시 : 2000. 2. 22(목), 4동 대형강의실

■특강 : 경제학부의 매력(이창용 교수)

3) 상대동창회 상대동창회장상 및 우수논문상

수여식

■일시 : 2001. 2. 21

■장소 : 11:30 상의클럽

■상대동창회장상 : 경제학부 1명(윤경수)

■우수논문상 : 경제학부 1명(조영준)

4) 200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일시 및 장소 : 2001. 2.26(월), 체육관

■학사 : 152명

■석사 : 19명

■박사 : 5명

■학부 졸업포상 : 최우등 4명, 우등 23명

5) 2001학년도 입학식 및 경제학부 신입생,

대학원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 2001. 3. 2(금) 11:00, 체육관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01. 3. 2(금) 15:00, 박물관 강당

■경제학부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00. 3. 6(목) 13:00 16동, M107호

6) 박우희 교수 정년퇴임 기념 저작집 출판회 및

논문집 봉정식

■일시 : 2001. 3. 12(월) 18:00,

■장소 :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7)故김태성 교수 유고논문집 증정식

■일시 : 2001. 3. 28(수) 18:00

■장소 :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 룸

3. 입시

- 1) 2001학년도 제1학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수학가능여부 심사
 ■합격자발표 : 2000. 12. 19 (화)
 ■국제교류학생 서류심사 : 2명 지원,
 2명 선발(송정윤, 임상혁)
 ■국제교환학생 서류심사 : 1명 지원,
 1명 선발(곽제훈)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학원과정 : 3명 지원,
 2명 선발(석사과정 : 발레리에나, 김옥)
- 2) 2001학년도 대학입학교사 정시모집 전형
 ■전형기간 : 2001. 1. 8. - 2001. 1. 27
 ■474명 지원, 172명 합격
 ■교교장 추천장입학전형, 특차전형 각 22명
 합격
- 3) 2001학년도 대학원 정시모집 전형
 ■필답고사 : 2000 11. 25.(토)
 ■석사과정 : 22명 지원, 11명 합격
 ■박사과정 : 2명 지원, 1명 합격
 ■8월 특차모집 : 석사과정 29명 지원, 25명
 선발, 박사과정 9명 지원, 6명 선발
- 4) 2001학년도 학사편입학교사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 2001. 1. 31
 ■13명 지원, 6명 선발(군위탁생 1명 포함)
- 5) 2001학년도 전과(부) 시행
 ■면접 및 구술고사 : 2001. 2. 2(금)
 ■합격자발표 : 2001. 2. 10. (토)
 ■전출지원자 8명중 6명 전출, 전입지원자 12
 명중 9명 선발
- 6) 2001학년도 석박사통합과정 전형 시행
 ■면접 및 구술고사 : 2001. 2. 9(금)
 ■합격자발표 : 2001. 2. 23(금)
 ■5명 지원, 4명 선발
 (김명록, 김형진, 오승연,이진영)

▲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호 바로가기 제5호 ▼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m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5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 동문기고1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1

동문기고2



여러 가지 선택을 앞 둔 후배들에게

육심강

(주)동특 육심강 대표

금 번 경제연구소에서 새로 개설한 '세계 경제 최고 전략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서 관악캠퍼스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또, 금년은 우리 학년이 입학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감회가 사뭇 다르다.

지난 20년 동안 먼저 길을 간 선배로서 나름대로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간간이 얻은 경험을 미려하
나마 여러 후배와 나눠봤으면 한다.

대학교 4학년 이맘 때 나는 굉장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은 인생의 한 장이 크게 접히는 굉장한 변화로 다가왔고, 앞으로 가능해 보이는 여러 현실적인 선택지들은 마치 미인대회라도 하듯이 나를 둘러싸고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 시간은 훌, 많아 보이기도 했고 반면에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와 가능성의 넓은 대로가 갑자기 현실적 선택이라는 좁은 길로도 보이기도 했다.

앞에 보이는 길은 갈라지고 또 갈라져 있는 듯이 보였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의 첫 학기에는 가치학 강의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가치학의 내용은 세상의 여러 가치에 대한 인식과 측정의 선택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인문과학 일반의 중요한 내용은 가치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존재하는 가치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오늘 날의 입시 교육은 대학에 갈 때까지 모든 가치 판단을 유보하도록 가르친다. 그리하여 어렵사리 진학한 그들에게 공통된 기대 중의 하나는 대학에만 가면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가치 판단이 일거에 자명해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선택의 대상만큼 없이 넓어졌을 뿐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선택해야 할지는 더욱 막막해진다. 교수들은 저마다 자신이 선택한 가치의 전도사가 되어 그것이 지상임을 선전할 뿐 가치들 상호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이는 적고 선택 주체의 개성에 대한 배려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거기 따라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과정의 혼란과 방황은 '의미 있는 소모'로 승인되어도 좋을 것이다.』 ? 이문열, 변경 제10권 -

내가, '이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진정 해 볼만한 일이다'라는 느낌을 가진 일을 만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언젠가 의대를 진학 해 의사의 길을 가고, 고시를 통과해서 공무원이나 법조계로 진출한 친구들이 부러워 보인 적이 있다. 그들이 부러웠던 것은 그들의 이뤄 가고 있는 성과도 성과지만 그들의 인생은 큰 궤적이 어는 정도는 정해진 것처럼 보여 우리처럼 의미 있는 소모(?) 기간이 적어 보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 후, 은행과 컨설팅 회사를 거쳐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을 경영 하게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자그마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내가 세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단으로써의 일을 찾기 위해 끈기 있게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떠한 성취를 이룬 후, 어떠한 모습으로 맞아야 한다는 확실한 이미지를 가진 일일 것이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일은 진정 내가 세운 인생의 최종 가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일 일까?’

항상 위의 두 화두를 갖고 오랫동안 씨름을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일을 선택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을 갖게 되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즐겁다’는 것 대해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즐겁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다. 지속적인 에너지의 창출은 나이도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을 뿐 더러 부수적으로 여러 인간 관계도 윤택하게 이끌어준다. 직·간접적으로 보아온 여러 사람들 중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이 풍요로워 보였다. 여기서 즐거워야 한다는 것은 수고스럽게 즐겁게 만들거나 자기 최면적이어야 한다는 것과는 무척 다르다.

둘째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계속 진화하기를 바랬다.

세상 변화의 빠르기가 급기야는 정보가 광속으로 전달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각종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정보와 지식의 양은, 지식의 깊이가 증시되었고 시차가 있던 3차원의 세계로부터 동시적이고 보다 스피드 있는 결정이 필수 불가결한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정말,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4차원의 입체공간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제외하고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들었던 삶의 여러 방식들이나 지혜는 어차피 수정이 불가피한 듯 보인다. 삶의 방식이 유연하지 못하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계속 진화하지 못하고 화석화 될 수 밖에 없다. 나는 항상 눈을 뜨고 진화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일이나 직업은 수단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삶의 페이스는 내가 조정하고 싶었다.

2년 전부터 마라톤 경기에 참가해 왔다. 자꾸 비대해지는 몸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주는 느낌이 웬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아직 초보인 내가 봐도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실력에 맞게 전 경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다. 마라톤 경기에서 전체 운영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구간 별 전술을 세우듯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5년 단위로, 위의 언급한 화두를 거울삼아 매번 점검하며 다음 구간에서의 스피드와 페이스를 생각하고 있다.

최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넓은 범위에서 소위 M&A라고 불리우는 기업의 인수 @ 합병에 관계된 일이다. M&A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일은 내가 사고자 또는 팔고자 하는 시점에서 해당 목표 기업의 가치를 비교적 단 시간에 정확히 계산해내고, 거래 후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내는 지난한 과정이다. 많은 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의 큰 사업부문의 가치를 계산해보면서 문득 내 개인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종종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내가 내 개인의 가치를 계속 높여간다면 직업 선택에 있어서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차피 직업은 수단이고 목적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다른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이거다’라고 단정 지어서 제시 하지 못했지만 일을 선택할 때 선택이 제시한 점검표로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삶의 방식을 일관성 있게 이루라는 말을 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김광섭’씨가 쓴 글 중 ‘일관성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시며 일관성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가를 주제로 쓰신 글인데 그 때는 잘 몰랐지만 요즘 새삼 느끼고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한 방향, 외곬수라는 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예측 가능한 궤적의 삶을 영위하느냐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고 그려가는 인생의 최적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삶이 되도록 힘써 주었으면 한다.

▲ UP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5 호 발간일 : 2003 년 11 월 12 일

→ 동문기고2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동문기고1

동문기고2



경제학과와 역사학

문성혁(석사과정)

경제학부와 대학원 자치회장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필자가 대학에 들어온 지 10년째로 접어드는 요즘에 들어서 부쩍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기반이 정말 이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급박하게 변해왔구나 하는 점이다. 물론 그 변화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변화의 하나로 냉전 의식의 해체와 시민 의식의 성장을 꼽고 싶다.

이의 직접적인, 그리고 관련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를테면 남녀노소 국민의 대부분이 - 물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 북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더 이상 '호시탐탐 남침 야욕에 불타는 이리떼'와 '그 수괴'로 생각하지만은 않게 되었다는 점도 그렇고, 1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서구의 좌파 사상들을 책으로, 혹은 영화로, 혹은 신문·잡지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념적 다양성이 용인되게 되었다는 점도 그렇고, '386 세대' 혹은 '모래시계 세대'라는 호칭이 일종의 명예로운 무공훈장처럼 인식되면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쪽엔 관심이 없었을 것이 분명한 모 국회의원 출마자가 '나도 386'이라며 항변하고 다니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봐도 그렇다.

딱히 논리정연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나아가 아마도 최근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는 '역사 바로잡기 움직임'(?) 같은 것들도 대충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사람들이 "조국근대화를 위해 돌격 앞으로!"에 발맞추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배해 왔던 각종의 고정관념과 기득권 세력의 존재의 정당성 등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갑이 없어진' 사람들이 미군 부대 앞에 가서 드러눕기도 하고, 경찰의 시위대 폭행 장면을 공중파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기도 하고, '지금까지 민족지라고 자처해 왔던 메이저 신문들이 알고 봤더니 친일지예, 정권의 나팔수였더러'는 얘기를 내놓고 툭툭거리며 하는 게 아니겠는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닥뜨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에 대한 답을 찾이란 그리 간단치 않기 마련이다. 특히 필자처럼 공부를 업(業)으로 삼겠노라고 다짐한 처지에서 그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는 더욱 그렇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신문시장 개혁 문제만 생각해봐도 그렇다. 신문고시 부활을 비롯한 각종의 조치를 통해 신문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표면적인 논리적 근거는 신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얘기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현재 신문시장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메이저 신문들이 지나온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사회적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 견제하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믿는 대단히 강한 가치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나, '합리적 소비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어찌보면 부차적인 것일 수 있고, 그보다는 차라리 지난 과거사의 공과(功過)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사상대토론회'가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럴 때 지금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대단히 기술공학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의 경제학이라는 분과학문이 던져줄 수 있는 해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A. Sen)은 {윤리학과 경제학}(On Ethics and Economics, 1987)이라는 저서에서 "경제학은 윤리학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빈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여러 가지 역사·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할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경제학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느낌을 한 두 번 받은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럴 때마다 경제학을 공부할 의욕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던 경험도 그만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때에는 더욱 그렇기 때문이다.

필자는, 계산논리에 주로 충실한,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으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강한 오늘날의 경제학이 우리들 개개인의 안녕에 제대로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역사관과 시대정신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우리의 경제학 교육에서 이를 모두 기대하기란 무리라고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혹은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다른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사회와 역사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사회적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위치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